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의안에 대한 연구

박윤성 · 하기태 · 김준기 · 최달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Study on the Medical Records in *Naekyung-pyun* of *Donggeuibogam*

Yoon Seong Park, Ki Tae Ha, June Ki Kim, Dall Yeong Choi*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Medical records (醫案) are very important materials in study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edical records which are described in *Naekyung-pyun*(內景篇) of *Donggeuibogam*(東醫寶鑑), the most famous medical literature in Korean. There are 50 medical records in *Naekyung-pyun* and all of these records are cited from 12 Chinese medical literatures. The medical records were mainly cited from medical literatures written in *Jin-Yuan*(金元) and *Ming*(明) dynasty such as *Yixuegangmu*(醫學綱目) and *Danxizanyao*(丹溪纂要), although most records were written by medical scholars in *Jin-Yuan*(金元) dynasty, including *Zhudanxi*(朱丹溪) and *Zhangzihe*(張子和). Most of records were omitted and/or modified reflecting the purpose of editors of *Donggeuibogam*. In addition, medical essay(醫論) was changed into medical record in some cases. The authors of the records used oral medication, acupuncture-moxa, psychological treatment and surgical manners. And in some cases of only having principal of treatment, the editors newly added the herbal prescription. The further study on medical records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al literatures, would reveal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Korean medicine and inform more actual proof on medical condition.

Key words : Medical records, *Naekyung-pyun*(內景篇), *Donggeuibogam*(東醫寶鑑)

서론

醫案은 病案, 脈案, 方案, 診籍 등의 異名으로도 불리는데, 그 歷史的 由來는 대단히 깊어서 『史記』 『扁鵲倉公傳』에 수록된 淳于意의 診籍¹⁾에서 시작된다. 醫案이란 醫師가 患者의 症狀, 病因, 脈狀, 舌狀, 病機, 診斷, 轉歸, 治則, 注意事項 등을 개괄적이고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또 분석하며, 아울러 사용한 藥物의 名稱, 劑量, 炮劑方法, 服用法 등의 治療 處置를 文字로 기록한 醫學 資料를 의미한다. 實驗的인 方法을 토대로 성립되어 있는 西洋醫學과는 달리 韓醫學은 治療 成果 및 治療 機轉의 實驗的인 立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韓醫學의 實證性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도 臨床的 經過의 기록인 醫案에 대한 研究는 매우 절실하다. 또한 韓醫學 理論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醫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데, 韓醫學 最古 古典의 하나인 『傷寒論』도 실질적으로는 醫案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므로²⁾ 醫案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中國에서는 明代 江

瓚의 『名醫類案』 이후 여러 專門的인 醫案書籍이 출판되었으며 1959년에 編纂된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에 따르면 醫案과 聯關된 著作은 288종이나 된다고 하다.³⁾ 그리고 현재 中國에서는 최근 발간되는 中醫書 중에서 醫案 계통의 서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醫學教育에 醫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專門的인 醫案書籍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醫案의 收集과 整理 및 研究도 미흡한 실정이다.

『東醫寶鑑』은 1596년에서 1610년까지 許浚에 의해 編纂되어 1613년 刊行된 官撰醫書로 朝鮮時代 韓醫學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東醫寶鑑』은 目錄上·下와 內景篇 4권, 外形篇 4권, 雜病篇 11권, 湯液篇 3권, 鍼灸篇 1권 등 全 23卷 25冊 5大綱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內景篇 4卷은 身形·精·氣·神·血과 함께 독특하게 夢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며 聲音·言語·津液·痰飲과 臟腑⁴⁾, 蟲·小便·大便 등 총 26項이 있고 그 아래 項目

* 교신저자 : 최달영,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dydkom@dongguk.ac.kr, · Tel : 054-770-2367

· 접수 : 2005/10/27 · 수정 : 2005/12/05 · 채택 : 2005/12/14

1) 張笑平 主編. 中醫病案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 9.

2) 施杞, 蕭敏材 主編. 中醫病案學. 上海. 中國大百科出版社上海分社. pp 140-141.

3) 張笑平. 상계서. p 2.

에 醫論과 病證·方藥·醫案 등이 기술되어 있다⁴⁾. 그동안 『東醫寶鑑』에 대한 여러 방면의 연구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하여 계속 되어 왔으나, 『東醫寶鑑』에 수록된 醫案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筆者는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醫案에 대한 整理 및 分析을 통하여 앞으로의 醫案 研究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론

1. 우리나라 의안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 以前에 醫案을 수록한 醫書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高麗時代에는 宋 및 元과의 醫學 交流가 비교적 활발했다는 것과 中國과의 醫學 交流가 아직 활발하지 않던 朝鮮初의 『醫方類聚』에 金元四大家의 醫書가 인용된 것⁵⁾을 생각할 때 高麗時代에 이미 醫案을 수록한 醫書가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⁶⁾고 생각된다.

朝鮮前期 世宗朝에 편찬된 『醫方類聚』에서는 주로 宋·金元代 醫書의 醫案을 다수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現存하는 醫案이 수록된 최초의 韓國醫書로 볼 수 있다. 그 후 燕山君 3년에 李宗準이 지은 『神仙太乙紫金丹』에서 자신이 紫金丹으로 치료한 8개의 經驗例를 卷末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韓國 醫案의 효시로 볼 수 있다⁷⁾고 한다.

朝鮮後期에 이르러서는 光海君 때 許浚의 『東醫寶鑑』에서 주로 金元四大家와 明代 醫家의 醫案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醫話에 가까운 條文이 상당수 있으며 醫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醫論 및 處方과 혼재되어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編制는 醫案을 따로 구분하여 수록한 『萬病回春』·『醫學綱目』 등의 中國醫書나 『醫門寶鑑』에 비하여 醫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景宗 4년에 周命新이 지은 『醫門寶鑑』에서는 諸家의 醫案과 자신의 經驗을 수록하고 있는데, 醫案을 醫論 및 處方과 분리하여 따로 「經驗」에 수록하고 있다⁸⁾고 한다. 高宗 때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도 “嘗治…” 혹은 “嘗見…”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모두 醫案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治療經驗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언급⁹⁾하고 있다.

現代에 출판된 醫書 중에서 醫案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는 『晴崗醫鑑』¹²⁾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책의 ‘加減方’이라는 항목은 모두 醫案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그 수가 많고, 病證도 다양하여 醫案 研究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2. 연구방법

本考은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50首의 醫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醫案과 醫話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條文들 중 患者와 病證, 그리고 機轉이나 治療가 기재된 것은 醫案으로 취급하였다.

각 醫案마다 번호를 붙이고 原文과 解釋·出典을 실었으며 檢索語를 덧붙였는데, 구두점은 『對譯 東醫寶鑑』¹³⁾을 기초로 하였다. 出典은 『東醫寶鑑』에 표기된 醫書나 醫家의 著作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고, 내용과 문장의 類同性에 초점을 맞추어 引用圖書를 검색하여 『東醫寶鑑』 原文에 가장 근접한 醫書를 그 醫案의 出典으로 판단했다.

『東醫寶鑑』의 標記와 實際引用圖書가 다른 경우에는 出典에 ‘丹溪 → 醫學綱目’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검색어에는 項目, 病名, 특징 症狀, 病理에 대한 설명, 處方, 加減藥物과 醫案에 나오는 患者나 醫家의 姓名을 수록하였다.

3.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의안

醫案 「夢泄亦屬鬱」

○原文：嘗治一男子夢遺白濁，小腹有氣衝上，每日腰熱，卯作酉涼。腰熱作則，手足冷，前陰無氣。腰熱退，則前陰氣耕，手足溫。又朝多下氣，暮多噫氣，一句二句必遺。脉且弦滑而大，午則洪大。予知其有鬱滯，先用沈香和中丸下之(方見痰飲)，次用加減八味湯(方見五藏)，吞滋腎丸(方見小便)百丸。若與澁藥，則遺與濁反甚，或一夜再遺。改用導赤散(方見五藏)大劑煎服，遺濁皆止。

○出典：醫學綱目¹⁴⁾

○檢索語：精，夢泄，鬱滯症，夢遺白濁，小腹有氣衝上，腰熱，沈香和中丸，加減八味湯，滋腎丸，與澁藥則遺與濁反甚，導赤散

醫案 「夢泄亦屬鬱」

○原文：又一男子夢遺，醫與澁藥反甚，先與神芎丸(方見入門)大下之，却服此猪苓丸，亦痊。可見夢遺屬鬱滯者多矣。

○出典：醫學綱目¹⁵⁾

○檢索語：精，夢泄，鬱滯，澁藥反甚，神芎丸，猪苓丸

醫案 「精滑脫屬虛」

○原文：一人虛而泄精，脉弦大，服諸藥不效。後用五倍子一兩，白茯苓二兩，爲丸服之。良愈。五倍澁脫之功，敏於龍骨蛤粉也 <綱目>

○出典：醫學綱目¹⁶⁾

4) 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膽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 等の 項이 여기에 해당한다.

5) 東醫寶鑑 總目(對譯東醫寶鑑 p 15-32)

6) 김두중,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p 118.

7) 김신근, 韓醫藥書放,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94-95.

8)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2000) 『醫門寶鑑』에 收錄된 醫案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4), p 30.

9) 安秉禧, 『神仙太乙紫金丹』 解題, 서울, 한국서지학회, 季刊書誌學報(6), p 155-203.

10) 김두중, 상계서, 周命新, 醫門寶鑑, 대구,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社, p 337.

11) 송일병 外編,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pp 150-151.

12) 金永勳 著, 李鐘聲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3)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 東醫寶鑑』, 법민문화사, 1999, 12.

14) 「卷之二十九·腎膀胱部·夢遺」, 동일하다. 다만 환자가 壯年이고, 투여하여 症狀이 더욱 심해지게 한 澁藥이 蛤粉 等이라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667)

15) 「卷之二十九·腎膀胱部·夢遺」, 좀 더 상세하다. 우선 환자가 中年이며, 의사가 澁藥을 복용시킨 후 半夜도록 여러 번 계속 遺泄을 하였다 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夢遺屬鬱滯者多矣” 문구 앞에 丹溪의 醫案(又丹溪先生治鎮守萬戶蕭伯善, 便濁精滑不禁, 百藥不效, 與試倒倉法而安)이 간략하게 부가되어 있다. (醫學綱目 p 667)

16) 「卷之二十九·腎膀胱部·夢遺」, 좀 더 상세하다. 환자의 이름은 王元珪이고, 加減八味湯 河間秘真丸 珍珠粉丸 등을 복용하여도 泄精이 멈추지 않아 五倍子 茯苓으로 만든 丸을 복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666)

○檢索語：精，精滑脫，虛症。虛而泄精，脉弦大，五倍子，白茯苓

醫案「常法治驚」

○原文：一婦人，夜值盜劫，大驚。自後聞有響即驚倒，不省。醫作心病治，不效。戴人見之曰，驚者爲陽，從外入。恐者爲陰，從內出。驚者爲自不知也，恐者爲自知也，膽者敢也。驚怕則膽傷矣。乃執兩手按於交椅上，當前置一几，謂之曰，娘子當視此，一木猛擊之，其婦大驚，旋少時又擊之，驚少緩，連擊四五次，然後徐徐驚定而嘆曰，是何治法。戴人曰，驚者平之，平者常也。平常見之，必無驚矣。是夜擊門窓，自昏達曙，熟臥不聞。夫驚者，神上越也。從下擊几，使之下視，所以收神也。<張子和>

○出典：張子和 ---> 儒門事親¹⁷⁾

○檢索語：神，驚悸，常法治驚，驚怕則膽傷，驚者平之，平常見之，神上越，從下擊

醫案「燒丹丸」

○原文：一少女患癇，遇陰雨及驚，則作聲似羊鳴，口吐涎沫，知其胎受驚也。其病深痼難治，先與燒丹丸，繼以四物湯入黃連，隨時令加減，且令淡味以助藥功，半年而愈。<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¹⁸⁾

○檢索語：神，癲癇，胎受驚，燒丹丸，四物湯加黃連

醫案「抱膽丸」

○原文：昔忠懿王¹⁹⁾之子得心疾，合此藥，偶有一風犬，飼之即甦，因破犬腹視之，則其藥抱犬膽，故因名之。<經驗方>

○出典：經驗方²⁰⁾

○檢索語：神，癲癇，心疾，藥抱犬膽，抱膽丸

醫案「通泄散」

○原文：經驗方曰，江浙一婦人，忽癲狂不止。醫曰，此得之驚憂之極，痰氣上犯心包，當伐其源。眞瓜蒂五錢，爲末，每取一錢，并華水調服，隨得大吐，吐後熟睡，切莫驚覺，自此無恙。此與得效方苦丁香散同

○出典：經驗方

○檢索語：神，癲狂，通泄散，瓜蒂，得效方，苦丁香散

醫案「辰砂散」

○原文：一僧忽患癲疾，不得眠臥，諸藥不效。孫兆曰，今夜睡着，明後日便愈也。但有鹹物，任與師吃，待渴却來道。至夜僧果渴，孫以溫酒一角，調藥一服與之。有頃再索酒，與之半角。其僧兩晝夜乃覺，人事如故。人問其故。孫曰，衆人能安神矣，而不能使神昏得睡。此乃靈苑方²¹⁾中辰砂散也，人不能用之耳。<綱目>

○出典：醫學綱目²²⁾

○檢索語：神，癲疾，一僧，不得眠臥，孫兆，使神昏得睡，靈苑方，辰砂散

醫案「大下愈狂」

○原文：一人病陽厥，狂怒罵詈，或歌或哭，六脉無力，身表如水石，發則叫呼高聲。易老曰，奪食則已。因不與食，又以大承氣湯(方見寒門)下之五七行，瀉渣穢數斗，身温脉生而愈。<綱目>

○出典：醫學綱目²³⁾

○檢索語：神，癲狂，大下愈狂，陽厥狂怒，六脉無力，發則叫呼高聲，奪食，大承氣湯

醫案「大下愈狂」

○原文：一叟值徭役煩擾，而暴發狂，口鼻覺如蟲行，兩手爬搔，數年不已。脈皆洪大如紐。戴人斷之曰，肝主謀，膽主決。徭役迫遽，財不能支，則肝屢謀，而膽屢不能決。屈無所伸，怒無所泄，心火盤礴，乘陽明金。然胃本屬土，而肝屬木，膽屬相火，火隨木氣而入胃，故暴發狂。乃置煖室中，涌而汗出三次。又以調胃承氣湯(方見寒門)大下二十餘行，血水與瘀血相雜而下數升，來日乃康。後以通聖散調其後。<儒門事親>

○出典：儒門事親²⁴⁾

○檢索語：神，發狂，大下愈狂，覺如蟲行，火隨木氣而入胃，汗出三次，調胃承氣湯

21) 『靈苑方』：北宋의 沈括이 撰한 醫書로 지금은 散失되어 傳하지 않고 있다. 佚文이 『證類本草』, 『幼幼新書』 등 後世醫書에서 散見된다.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篇 p 163)

22) 『卷之二十五·脾胃部·狂』 좀 더 상세하다. 환자가 相國寺의 승려이고 부유한 潘氏집안의 사람이라는 것과 癲疾을 半年동안 앓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복용한 약이 辰砂散이란 處方名이 아니라 朱砂, 酸棗仁, 乳香散과 같이 구성약물들로 기재되어 있다. (醫學綱目 p 573) 『醫學綱目』에서는 환자가 癲疾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不眠의 症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孫兆가 오늘날 잠을 자면 내일 모레에는 낫는다고 언급한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東醫寶鑑』에서는 『癲疾不得眠臥』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치료과장에서 睡眠이 治愈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환자의 원래 症狀과 혼동하여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23) 『卷之二十五·脾胃部·狂』 海藏 王好古의 醫案으로 내용이 상세하다. 우선 환자가 許氏라는 사람이고, 大承氣湯으로 汚物을 瀉下시키니 狂症이 약간 진정되었고 며칠 후에 再發하면 다시 瀉下시키는 것을 5~7 번정도 하니 病이 나왔다고 치료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醫案의 끝에 이것이 易老(張潔古)의 奪食之法이라는 문구가 附加되어 있다. (醫學綱目 p 572)

24) 『火形·狂』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다. 그 노인이 60세라는 것과 병리를 설명할 때 足陽明胃經의 流注와 口의 상관관계를 『口爲飛門, 胃爲員門, 口者胃之上源也, 鼻者足陽明經起於鼻交頰之中, 旁納太陽下循鼻柱, 交人中環唇下, 交承漿, 故其病如是.』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내경에서 말한 陽明經의 火邪로 인한 증상인 『火乘陽明故發狂, 故經言陽明之病登高而歌, 棄衣而走, 罵言不避親疏.』와 『木鬱則達之, 火鬱則發之』의 治법을 기재하고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33)

17) 『內傷形·驚』 그 부인은 衛德新의 아내인데 여행중에 樓上에서 목다가 도둑이 들어 宿소에 불을 질렀는데 놀라서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내용과 여러 의사들이 心病으로 보고 人蔘, 珍珠와 定志丸을 복용시켰다는 내용, 子과가 치료한 후에는 전동이 쳐도 놀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48)
이 醫案은 『醫學綱目』 「卷之十三·肝膽部·驚悸怔忡」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내용과 문장이 『儒門事親』과 동일하다. (醫學綱目 p 220)
18) 『第五十八·癇』 소녀의 나이가 八歲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309)
이 醫案은 『醫學綱目』 「卷之三十三·小兒部·小兒通治·生下胎疾」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소녀의 姓이 陳氏라는 것 이외에는 『丹溪纂要』와 내용과 문장이 일치한다. (醫學綱目 pp 821-822)
19) 中國 五代十國時代의 吳越國王으로 서기 948~978년 사이에 재임하였다. 佛心이 깊어 佛塔을 세우고, 佛書를 구하기 위해 高麗에도 서찰을 보냈다고 한다.
20) 『東醫寶鑑』 引用圖書目錄에서는 『南北經驗方』(즉 元代 孫允賢의 『醫方大成』), 『經驗秘方』(작자미상), 『經驗良方』(明代 鄒福)이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醫書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醫案「五志相勝爲治」

○原文：一婦人，飢不欲食，常好怒罵，欲殺左右，惡言不輟，衆醫不效。戴人視之曰，此難以藥治。乃使二娼，各塗丹粉作伶人狀，其婦大笑。次日又作角抵，又大笑。其傍常以兩箇能食之婦，誇其食美，病婦亦索食，而爲一嘗之。不數日，怒減食增，不藥而差。後生一子。夫醫貴有才，無才則何以應變無窮。<子和>

○出典：子和 ---> 儒門事親²⁵⁾

○檢索語：神，五志相勝，飢不欲食，常好怒，二娼各塗丹粉，大笑，應變無窮

醫案「五志相勝爲治」

○原文：一女許婚後，夫經商二年不歸。其女因不食，困臥如痴，無他病，多向裏床坐，此思想氣結也，藥獨難治。得喜可解，不然令其怒。予自往激之，大怒而哭，至三時許，令父母解之，與藥一貼，即求食矣。予曰，病雖愈，必得喜方已。乃給以夫回，既而果然，病不舉矣。蓋脾主思，過思則脾氣結而不食。怒屬肝木，怒則木氣升發而衝開脾氣矣。<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²⁶⁾

○檢索語：神，五志相勝，不食，困臥如痴，過思則脾氣結，怒則木氣升發，衝開脾氣

醫案「十四友元」

○原文：韓魏公舊患心疾，怔忡健忘，夢寐恍惚，多不得睡，異狀無不有，心藥無不服，未能收效。蓋此疾，本憂愁思慮耗心血而得之。今欲安心，當用當歸地黃等滋養心血，始見功效。若更服發散藥，如藎蒲之類，心氣愈散。緣用心過而成此疾也，服此大有神效。<經驗方>

○出典：經驗方

○檢索語：神，神病通治，十四友元，韓魏公，怔忡，健忘，滋養心血，當歸，地黃

醫案14. 「薄厥證」

○原文：入門曰，一人素無病，忽吐血半斗，脉弦急。陳景魁²⁷⁾示之曰，薄厥證也，得於大怒，氣逆陰陽奔併。用六鬱湯而得愈。

○出典：醫學入門²⁸⁾

○檢索語：血，薄厥證，吐血，脉弦急。陳景魁，大怒，氣逆陰陽奔併。六鬱湯

醫案15. 「淫邪發夢」

○原文：一婦人，常夢與鬼神交，驚怕異常，及見神堂陰司舟楫橋梁，如此十五年，竟無妊娠，諸治無效。戴人曰，陽火盛于上，陰水盛于下。見鬼神者，陰之靈。神堂者，陰之所。舟楫橋梁，水之用也。診之兩手，寸脉皆沈而伏，知其胸中有痰實也。凡三涌三泄三汗，不旬日而無夢，一月而有娠。<子和>

○出典：子和 ---> 儒門事親²⁹⁾

○檢索語：夢，淫邪發夢，常夢與鬼神交，驚怕，無妊娠，陽火盛于上，陰水盛于下，胸中有痰實，三涌三泄三汗

醫案16. 「魂離不睡」

○原文：四明堃生，患神氣不寧，每臥則魂魄飛揚，覺身在床而神魂離體，驚悸多寤，通夕無寐，更醫不效。許學士診之曰，以脉言之，肝藏受邪，非心病也。平人肝不受邪，臥則魂歸於肝，神靜而得寐。今肝氣因虛，邪氣襲之，肝藏魂者也，肝有邪則魂不得歸，是以臥則魂飛揚若離體也。肝主怒，故小怒則劇，遂處以眞珠母丸獨活湯二方以贈。服一月而病悉除(二方見上)。<本事方>

○出典：普濟本事方³⁰⁾

○檢索語：夢，魂離不睡，驚悸多寤，肝氣因虛邪氣襲，眞珠母丸，獨活湯

醫案17. 「思結不睡」

○原文：一婦人因思慮過傷，二年不得寐。戴人曰，兩手脉俱緩，此脾受邪也，脾主思故也。與其夫議以怒激之，多取財飲酒數日，不處一方而去。其婦大怒汗出，是夜因臥，如此者八九日不寤。自是食進，其脉得平。此因膽虛，不能制脾之思慮而不寐，今激之以怒，膽復制脾，故得寐也。<子和>

○出典：子和 ---> 醫學綱目³¹⁾

○檢索語：夢，思結不睡，脾受邪，膽虛不能制脾，以怒膽復制脾

醫案18. 「用藥法」

○原文：一人因恐得病，如人將捕，睡臥不安，飲食不知味，以人參白朮當歸身爲君，陳皮爲佐，加鹽炒黃柏灸玄參各少許爲使。煎

25) 「內傷形·病怒不食」 그 婦人이 項關令의 妻라고 기재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48)
또 이 醫案은 「醫學綱目」 「卷之二十五·脾胃部·狂」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項關令의 妻라고 기재된 것 이외에는 내용과 문장에서 「儒門事親」과 일치한다. (醫學綱目 p 574)
26) 「第八·鬱」 일치한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267)
이 醫案은 「醫學綱目」 「卷之二十一·脾胃部·痞」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丹溪纂要」보다 상세하다. 여자의 나이는 20餘歲이고 몸이 많이 瘦瘠해서 있었다는 내용과 부모가 환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결혼날짜를 잡았고 한 달쯤 후에 약혼자가 돌아와 결혼을 하자 病이 완전히 나아갔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450)
27) 明代의 醫家로 字는 敬曰. 江蘇 句容人으로 鍼灸에 능했으며, 「玉珍集」을 저술하였으나 佚失되었음.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p 296)
28) 「卷首 下·歷代醫學姓氏·儒醫·陳景魁」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단 「陳景魁示之曰」 문구가 「醫學入門」에는 빠져 있다. (編註醫學入門 上 p 94)

29) 「卷六·濕形·瀉兒八十一」 婦人의 나이가 34세이고, 침과 뜸의 適用으로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생기어 누렇게 瘦瘠해지고 發熱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어 中滿과 足腫이 생겼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43)
이 醫案은 「醫學綱目」 「卷之三十五·婦人部·胎前癩」 (醫學綱目 p 797) 과 「名醫類案」 「卷十一·求子」 (名醫類案 p 325)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儒門事親」과 동일하다.
30) 「卷第一·中風肝膽筋骨諸風」 좀 더 상세하다. 우선 癩丑년에 치료하였고, 許叔微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다른 의사들은 이를 어떤 병으로 보았냐고 묻자 환자가 心病으로 보고 치료하였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許叔微가 이 병에 대해 설명하자 환자가 이런 말은 전에 들었던 적이 없다며 의심하였고 이에 許叔微는 “公은 이 설명을 유념하면 서 다른 의사들과 治方을 의논 해보시오”라고 말한 후 열흘동안 기다렸고 다른 의사들이 병에 맞는 處方을 내놓지 못하자 眞珠母丸과 獨活湯을 처방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醫案의 뒤에 構成藥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附加되어 있다. (普濟本事方 pp 1-2)
31) 「卷之十五·肝膽部·多臥 不得臥·不得臥」 환자가 부유한 집안의 婦人이라는 기재가 있다. (醫學綱目 p 289)
이 醫案은 「儒門事親」 「內傷形·不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내용과 문장이 일치하지만 마지막 문장인 “此因膽虛不能制脾之思慮而不寐 今激之以怒膽復制脾故得寐也”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48) 따라서 이 醫案의 出典을 「醫學綱目」으로 한다.

服, 月餘而安. 此因恐傷腎, 故以鹽炒黃柏灸玄參, 引參歸等藥入腎也.<丹心>

○出典: 丹心 ---> 醫學綱目³²⁾

○檢索語: 夢, 不眠, 如人將捕, 恐傷腎, 人參, 白朮, 當歸, 鹽炒黃柏, 灸玄參

醫案19. 「聲音出於腎」

○原文: 一小兒吐瀉, 錢氏與瓜薑湯(方見小兒)得愈. 其兒又不大小便, 他醫以藥利之, 變身冷不飲食. 錢氏用益黃散使君子丸, 果身溫而能飲食. 其兒又不語, 錢氏曰, 此因涼藥利小便, 致脾胃俱虛, 今脾已實, 腎尚虛, 用六味地黃元(方見虛勞), 一月而痊.<錢乙>

○出典: 錢乙 ---> 小兒藥證直訣³³⁾

○檢索語: 聲音, 吐瀉, 瓜薑湯, 以藥利之變身冷, 益黃散, 使君子丸, 不語, 腎虛, 六味地黃元

醫案20. 「厥氣爲痞」

○原文: 一男子久病痰嗽, 忽感風寒, 食酒肉, 遂厥氣走喉, 病暴痞. 灸豐隆二穴各三壯, 照海二穴各一壯, 其聲立出. 仍用黃芩降火爲君, 杏仁陳皮栝梗瀉厥氣爲臣. 詞子泄逆氣, 甘草和元氣爲佐. 服之良愈.<綱目>

○出典: 醫學綱目³⁴⁾

○檢索語: 聲音, 厥氣爲痞, 感風寒食酒肉, 厥氣走喉, 暴痞, 豐隆, 照海, 黃芩, 杏仁, 陳皮, 栝梗, 詞子, 甘草

醫案21. 「一方」

○原文: 一男子因傷寒發熱, 忽神昏而痞, 作體虛有痰治之. 以人參三錢, 黃芪白朮當歸陳皮各一錢, 煎湯入竹瀝薑汁飲之, 十三日

始能言一字, 半月舌轉運能言語, 熱除而痞(此痰塞也).

○出典: 丹溪 --> 醫學綱目³⁵⁾

○檢索語: 言語, 痰塞, 痞(不語), 人參, 黃芪, 白朮, 當歸, 陳皮, 竹瀝, 薑汁

醫案22. 「一方」

○原文: 一男子嗜酒, 多吐血後舌不能語, 但渴飲水, 脉略數. 與當歸芍藥川芎地黃各一錢, 白朮人參各二錢, 陳皮一錢半, 甘草五分, 水煎入竹瀝童便薑汁服之, 至二十餘貼能言(此亡血痞也)<丹溪>

○出典: 丹溪 --> 醫學綱目³⁶⁾

○檢索語: 言語, 亡血, 痞(不語), 吐血後舌不能語, 當歸, 芍藥, 川芎, 地黃, 白朮, 人參, 陳皮, 甘草, 竹瀝, 童便, 薑汁

醫案23. 「治法」

○原文: 一婦人病喜笑不已, 已半年, 衆治無效. 戴人曰, 此易治也. 滄鹽成塊者二兩餘, 火煨令赤, 放冷研細. 河水一大碗同煎, 溫服三次, 以釵股探喉, 吐出熱痰四五升. 次服黃連解毒湯, 不數日而笑定. 內經曰, 神有餘則笑不休. 神者心火是也. 火得風而焰, 故笑之象也. 五行之中, 惟火有笑. 嘗治一老人笑不休, 口流涎, 以黃連解毒湯(方見寒門)加半夏竹葉竹瀝薑汁服之, 笑止矣.<子和>

○出典: 子和 ---> 醫學綱目³⁷⁾

○檢索語: 言語, 笑, 涎, 神有餘則笑不休, 神者心火是也, 黃連解毒湯, 加半夏竹葉竹瀝薑汁

醫案24. 「童子盜汗」

○原文: 一童子, 自嬰至童, 盜汗七年, 諸藥不效. 用涼膈散三黃元(並見火門), 三日病已. 蓋腎主五液, 化爲五濕. 相火逼腎, 腎水上行, 乘心之虛而入手少陰. 心火炎上而入肺, 欺其不勝已也. 皮毛以是而開, 玄府不閉而爲汗. 先以涼膈散瀉胸中相火, 次以三黃丸瀉心火以助陰分, 則腎水還本, 汗自止矣.<海藏>

32) 『卷之二十九·腎膀胱部·恐』 좀 더 상세하다. 환자는 周本心이란 者로 나이는 60세이며, 환자의 形氣가 모두 實한데 크게 회를 내어 이 병이 발생하였고, 귀 뒤에서 불에 타는 듯한 熱感和 口乾이 있지만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다. 또 “此因恐傷腎故以鹽炒黃柏灸玄參引參歸等藥入腎也”라는 문장은 醫案의 부연설명으로 되어 있다. (醫學綱目 p 669)

이 醫案은 『丹溪纂要』「第六十怔忡」에서도 나오는데, 보름(半月)만에 나왔다는 치유기간의 차이가 있고 醫案의 마지막에 있는 “此因恐傷腎故以鹽炒黃柏灸玄參引參歸等藥入腎也”라는 문구는 『丹溪纂要』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310)

33) 『卷中·記嘗所治病二十三證』 매우 상세하다. 우선 환자가 東都의 王氏의 아들이고 만환을 하자 여러 의사들이 잘못 瀉下시켜 虛한 상태가 되어 자면서도 눈동자가 뒤집어지고(睡露睛) 손발에 경련(痲瘋)이 일어나고 땀이 차가워지는 漫驚風이 되었고, 錢氏가 括蕪湯을 服用시킨 후 胃氣가 實해져서 눈이 떠지고 몸이 따뜻해졌다는 내용과 大小便이 나오지 않자 다른 의사들이 八正散을 誤用하였고 이에 錢氏는 음식을 먹지 못하여 胃氣가 虛한데 억지로 大小便을 통하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이 오래 되면 脾胃가 모두 虛하게 되어 身冷과 閉目이 생기는데 다행히 患兒는 胎氣가 實하여 쉽게 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藥을 네 번 服用시키니 治愈되었다는 내용, 失音은 눈도 떠지고 음식도 먹을 수 있으면서 牙口가 緊急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 의사들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였고 補腎을 하여 보름이 지나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달이 되자 치유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小兒藥證直訣 p 37)

이 醫案은 원래 『小兒藥證直訣』에서는 脾胃虛로 인한 漫驚風의 여러 증상들과 그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東醫寶鑑』에서 聲音出於腎에 대한 醫案으로 인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였다. 이렇게 原出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용되면서 단순화시키거나 약간의 내용의 수정을 거친 醫案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34) 『卷之二十七·肺大腸部·暗·喉暗』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만 환자의 나이가 49歲라는 것과 땀을 뺀 후 환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聖經(黃帝內經)』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620)

35) 『醫學綱目』「卷之二十七·肺大腸部·暗·舌暗」에는 환자가 中年男子이고 神昏과 痞의 증상이 傷寒處方을 5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한 후에 발생하였고, 약을 투여한 후 13일이 아니라 12일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醫案의 뒤에 心脾腎經의 血과 舌과의 연관성에 대해 부연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醫學綱目 p 618)

『東醫寶鑑』에서는 이 醫案의 出典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醫案은 丹溪의 것이지만, 醫案21번과 醫案22번은 『名醫類案』「卷七·痞」에서는 呂元膺의 醫案(名醫類案 p 210)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과 『醫學綱目』에서는 丹溪의 의안으로 되어 있고, 내용과 문장이 일치하므로 오히려 『名醫類案』의 誤記로 판단된다.

36) 『醫學綱目』「卷之二十七·肺大腸部·暗·舌暗」 남자의 나이가 50여세이고, 만혈 후 음식을 먹지 않는 증상이 있고, 약의 용량이 1劑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醫案의 뒤에 心脾腎經에 風熱이 침범하여 舌이 弛緩되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과 中風半身不遂도 이와 같이 치료한다는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醫學綱目 p 618)

이 醫案 역시 『名醫類案』「卷七·痞」에는 呂元膺의 醫案(名醫類案 p 210)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誤記된 것이다.

37) 『卷之十六·心小腸部·譫妄·喜笑不休』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張子和가 길을 가다가 古宅에서 환자를 만났고, 火主苦하며 解毒해야 하므로 黃連解毒湯과 같은 降火劑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318)

이 醫案은 『儒門事親』의 「火形·笑不止」에서도 나오지만, 이 醫案의 마지막에 있는 또 다른 治驗例인 “嘗治一老人笑不休口流涎以黃連解毒湯加半夏竹葉竹瀝薑汁服之笑止矣”는 『儒門事親』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34) 따라서 이 醫案의 出典을 『醫學綱目』으로 한다.

○ 出典 : 海藏(王好古) ---> 醫學綱目³⁸⁾

○ 檢索語 : 津液, 盜汗, 腫子, 涼膈散, 三黃元, 相火逼腎, 瀉胸中相火, 瀉心火以助陰分.

醫案25. 「吐下療白帶」

○ 原文 : 一婦人病白帶, 如水漏下, 臭穢不可近. 戴人曰, 此帶濁水, 本熱乘太陽經, 其寒水不禁固, 故如此也. 夫水自高越下, 宜先絕其上源. 乃以瓜蒂散涌痰二三升, 次日服導水丸下污水十餘行, 三遍, 汗出周身, 至明朝, 病人云, 汚已大下矣. 次用寒涼之藥, 服及半載, 生一男.<子和>

○ 出典 : 子和 --> 醫學綱目³⁹⁾

○ 檢索語 : 胞, 白帶下, 如水漏下, 臭穢, 熱乘太陽經, 宜先絕其上源, 瓜蒂散, 導水丸, 寒涼之藥

醫案26. 「諸物變蟲」

○ 原文 : 李道念有疾, 褚澄診之曰, 非冷非熱, 當是食白淪鷄子過多所致. 取蒜一升煮食之, 吐一物大如升, 涎裹之. 開看則是鷄雛, 羽翅瓜足皆具, 既而病差.<本草>

○ 出典 : 本草 ---> 食物本草⁴⁰⁾

○ 檢索語 : 蟲, 諸物變蟲, 白淪鷄子, 蒜, 吐一物, 鷄雛

醫案27. 「諸物變蟲」

○ 原文 : 一人患腰痛牽心, 每至輒氣欲絕. 徐文伯視之曰, 此髮瘕也. 以油投之, 卽吐物如髮, 稍引之, 長三尺, 頭已成蛇, 能動. 掛門下, 滴盡, 惟一髮而已.

○ 出典 : 醫說⁴¹⁾

○ 檢索語 : 蟲, 諸物變蟲, 腰痛牽心, 輒氣欲絕, 徐文伯, 髮瘕, 油, 一髮

醫案28. 「諸物變蟲」

○ 原文 : 一道人心腹煩滿, 彌二歲. 甄立言診曰, 腹有蟲, 誤食髮而然. 令餌雄黃一劑, 少頃吐一蛇無目, 燒之有髮氣, 乃愈.<醫說>

○ 出典 : 醫說⁴²⁾

○ 檢索語 : 蟲, 諸物變蟲, 腹有蟲, 誤食髮, 雄黃

醫案29. 「溫胃安蟲」

○ 原文 : 一女患惡心吐虫, 累治不差. 每用殺虫藥, 則吐愈多. 孫兆診之曰, 六脉皆細, 非虫脉也. 乃藏寒而虫不安, 因而吐出, 復用殺虫藥, 虫爲藥所苦, 不能自安, 所以吐愈多也. 取硫黃附子炮各一兩, 爲末, 米糊和丸麻子大, 米飲下三十丸, 遂不吐, 後不復作.<綱目>

○ 出典 : 醫學綱目⁴³⁾

○ 檢索語 : 蟲, 溫胃安蟲, 惡心吐虫, 六脉皆細, 臟寒, 硫黃, 附子

醫案30. 「酒蟲心痛」

○ 原文 : 楊仲臣病心痛, 此人常好飲酒. 初飲二三盃, 必奔走頓兩足, 三五十次, 其酒稍散, 方能復席, 飲至前量, 一醉必五七次. 至明嘔青黃水, 數日後, 變魚腥臭, 六七日始安. 戴人曰, 酒虫也. 宜涌之, 乃吐虫一條, 赤黃色長六七寸, 口目鼻皆全, 狀如蛇, 其疾卽愈.<子和>

○ 出典 : 子和 ---> 儒門事親⁴⁴⁾

○ 檢索語 : 蟲, 酒蟲心痛, 楊仲臣, 常好飲酒, 至明嘔青黃水, 數日後變魚腥臭, 吐

醫案31. 「一方」

○ 原文 : 予每覺心中多嘈雜, 疑是虫, 漫服此藥, 翌日下寸白一表, 中有長虫二條, 長二尺五寸, 一則皆寸斷矣.<本事方>

○ 出典 : 普濟本事方⁴⁵⁾

○ 檢索語 : 蟲, 心中多嘈雜, 寸白, 錫灰, 蕪荑, 檳榔

38) 「卷之三十七·小兒部·心主熱·盜汗」 약간 더 상세하다. 환자는 平郎中の 아들이고, 盜汗의 病理를 설명하는 부분의 끝에 「此于睡中者爲盜汗, 以其覺則無之, 故經云寤汗惺風是」란 문구가 덧붙여 있다. (醫學綱目 p 842)
이 醫案은 「名醫類案」 「卷十二·汗」에도 있는데 「醫學綱目」과 내용과 문장이 일치한다. (名醫類案 p 349)

39) 「卷之三十四·婦人部·調經·赤白帶」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환자는 息城 李左衡의 妻이고, 증상이 帶下 외에도 面黃食減이 있고 이런 상태가 3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사이 여러 의사들이 이를 積冷으로 보고 陽起石 硫黃 葶附 등의 약물을 오용하여 더욱 燥하게 하여 汚水가 더 增加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794)
이 醫案은 「儒門事親」 「瀉形·白帶」(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42)에도 있는데 환자의 症狀과 誤治의 내용, 그리고 「內經」과 劉河間의 이론들을 보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흐름과 문장이 비슷한 「醫學綱目」을 出典으로 한다.
또한 이 醫案은 「名醫類案」 「卷十一·帶下」에도 나오는데 환자가 息城 李左衡의 妻라는 내용만 빠지고, 나머지는 내용과 문장이 「醫學綱目」과 일치한다. (名醫類案 p 324)
또한 이 醫案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치료방법인 吐法과 下法의 처방으로 瓜蒂散과 導水丸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瓜蒂散과 導水丸은 「醫學綱目」과 「名醫類案」, 「儒門事親」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東醫寶鑑」을 저술할 때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40) 「卷之六·菜部一·葷辛類·蒜」 상세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李道念이 病을 앓은 지 5년이 되었다는 것과 한번 吐한 후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며 다시 12개의 덩어리를 마하게 한 후에 病이 나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에서는 이 病이 鯀의 卵(白淪鷄子)를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라 하였으나 「食物本草」에서는 단지 鷄卵(鷄子)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라 기재하고 있다. (食物本草 p 114)

41) 「卷五·瘕瘕·髮瘕」 좀 더 상세하다. 徐文伯의 字가 德秀이고 醫術을 좋아하였다는 내용, 환자가 宋明帝의 宮人이고 여러 醫師들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肉瘕라고 한 내용 등이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또한 것을 문에 걸었다(掛門下)고 하였으나 「醫說」에서는 기둥 위에 매달았

다(懸柱上)고 기재되어 있다. (中國醫學大成三編 第十二冊 p 102)

42) 「卷五·瘕瘕·食髮致疾」 좀 더 상세하다. 이 醫案이 唐書에서 인용된 것으로 甄立言은 甄權의 동생이고 환자는 60餘歲의 여승(尼)이라는 내용과 환자가 吐한 물체의 크기가 사람의 새끼손가락만 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醫說」에는 환자가 心腹이 膨脹하고 몸이 羸瘦하며 뱃속에 벌레(蟲)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中國醫學大成三編 第十二冊 p 102)

43) 「卷之十六·心小腸部·心痛」 좀 더 상세하다. 환자가 大王宮의 궁녀이고 七太尉(관직명)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惡心吐蟲의 증상이 자주 일어나자 七太尉가 이를 걱정하여 孫兆를 불렀다는 것과 孫兆가 藥을 한번 복용시키자 吐蟲의 증상이 멎었고 다음날 다시 孫兆를 불러 診脈하게 하니 六脈이 漸大되었으므로 다시 그 藥을 복용시키니 다시 再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304)

44) 「熱形·心痛」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儒門事親」에는 장자화가 환자의 병명이 酒蟲證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다. 단지 涌吐시켜야 한다고 말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38)

45) 「卷第七·諸蟲飛尸鬼症」 자세한 내용이 있다. 우선 治寸白蟲方을 「良方」에 의거하여 복용하였고, 2尺5寸하는 蟲의 모양이 머리는 넓고 꼬리는 가늘며 매 寸마다 마디가 하나씩 있었고 비단무늬처럼 반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醫案의 끝에 「千金方」을 인용하여 勞熱生熱 熱則生蟲로 蟲이 발생한다는 것과 心·脾·腎·肝·肺의 五臟蟲에 대한 설명이 附加되어 있다. (普濟本事方 pp 94-95)

醫案32. 「紫金錠子」

○原文：一女久患勞瘵，爲尸虫所嚙，磨一錠服之，一時吐下小虫十餘條，後服蘇合香元，半月如常。此藥廣施，瘵病無不驗.<入門>

○出典：醫學入門⁴⁶⁾

○檢索語：蟲，傳尸勞瘵，尸虫，紫金錠子，蘇合香元

醫案33. 「紫金錠子」

○原文：一家兄弟五人，並患傳尸勞，已死者三人。有方士教令服紫金錠，遂各服一錠，一人下惡物如膿狀，一人下死虫，皆愈.<醫鑑>

○出典：古今醫鑑⁴⁷⁾

○檢索語：蟲，傳尸勞瘵，紫金錠子，下死虫

醫案34. 「生地黃」

○原文：一女患心痛，氣垂絕。作地黃淘淘食之，便吐一物如蝦蟆狀，其病頓愈.<本草>

○出典：本草 --> 食物本草⁴⁸⁾

○檢索語：蟲，生地黃，蟲心痛，地黃淘淘

醫案35. 「鰻鱺魚」

○原文：昔有女子病瘵，家人取置棺中，流之於江，漁人取視猶活。多煮此魚食之，病愈。遂爲漁人之妻.<本草>

○出典：本草 --> 食物本草⁴⁹⁾

○檢索語：蟲，鰻鱺魚，病瘵，漁人

醫案36. 「滋腎丸」

○原文：一人病小便不通，腹脹脚腫，雙睛凸出，晝夜不眠，苦痛不可言，且苦嘔噦，衆醫無效。東垣曰，膀胱者，津液之府，氣化則能出矣。小便癃閉，是無陰而陽氣不化者也。此人奉養太厚膏粱，積熱故。膀胱者，腎之府，久而乾涸，小便不化。今內關外格之病悉具，死在朝夕，但治下焦，其疾自愈。遂處此方服之，須臾尿出如涌泉，卽差。

○出典：東垣 ---> 醫學綱目⁵⁰⁾

- 46) 「卷六·雜病用藥賦·諸蟲」, 「醫學入門」에서는 만한 蟲이 십여 마리가 아니고 수없이 많았다는 것과 치료기간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단지 「久患勞瘵 爲屍蟲所嚙 磨一錠 吐蟲千條 後服蘇合香丸而愈」라는 기재만 있다. (編註醫學入門 下 p 565) 따라서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윤색하여 「一女」인 환자와 「半月」의 치료기간을 기술하여 醫案의 형태를 갖추어 醫案처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醫學入門」의 醫論을 임상에서 그대로 실천한 경험을 서술한 것일 수도 있다.
- 47) 「卷十六·通治·神仙太乙紫金丹」 동일하다. 단지 醫案 뒷부분에 이 약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하여 구제하였는데 효과가 없던 적이 없었다는 기술이 덧붙여 있다. (古今醫鑑 p 519)
- 48) 「卷之十八·草部二·隰草類二·地黃」 좀 더 상세하다. 이 醫案이 劉馬錫의 「傳信方」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 환자가 崔氏집안의 사람이고 貞元 10년에 發病하였다는 것, 만한 물체가 손가락 정도의 크기이고 눈과 발은 없으나 입과 유사한 것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食物本草 p 359)
- 49) 「卷之十·鱗部·無鱗魚類·鰻鱺魚」 동일하다. 다만 勞瘵로 전염되어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환자를 관에 넣어 불에 띄어 보냈다는 내용과 관이 金山까지 흘러갔다는 내용이 있다. (食物本草 p 205)
- 50) 「卷之十四·肝膽部·閉瘵遺溺·小便不通」 환자의 症狀, 약의 服用方法, 治愈過程과 病理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증상에서 腹脹은 그 단단하기가 돌과 같아서 壅塞이 매우 심하고, 足腫과 더불어 살이 터지고 黃水가 흐르고, 더불어 飲食不下的 증상도 있다. 또한 嘔噦이 葶梁積熱의 火逆으로 생긴 것이며 그 열이 下焦에 있어 소변을 막고 있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利小便藥은 淡味로 滲泄하므로 關이 되므로 素問의 「無陽則陰無生, 無陰則陽

○檢索語：小便，小便不通，癃閉，滋腎丸，無陰而陽氣不化，積熱，久而乾涸，內關外格

醫案37. 「癃閉宜吐」

○原文：一人病小便不通，諸藥無效。丹溪曰，此積痰病也，積痰在肺，肺爲上焦，而膀胱爲下焦，上焦閉則下焦塞，比如滴水之器，必上竅通，而後下竅之水出焉。乃以二陳湯先飲，大吐之，病如失.<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⁵¹⁾

○檢索語：小便，癃閉宜吐，小便不通，積痰在肺，上焦閉則下焦塞，二陳湯

醫案38. 「轉脬證」

○原文：一婦患此，診之兩手似澹，重取則弦，此得之憂患。澹爲血少氣多，弦爲有飲。遂以四物湯加參朮半夏陳皮甘草生薑，空心煎服，隨以指探喉中，吐出藥汁。遂少頃，又與一貼，次早亦然，如是與八貼而安。此法恐偶中，後歷用數人皆驗.<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⁵²⁾

○檢索語：小便，轉脬證，澹爲血少氣多，弦爲有飲，四物湯加參朮半夏陳皮甘草生薑，指探喉中

醫案39. 「參朮飲」

○原文：一孕婦九月，轉脬尿閉，脚腫形痺，脈左稍和而右澹。此必飽食氣傷，胎系弱不能自舉，而下壓膀胱，故閉而不通。以人參白朮當歸芍藥陳皮半夏甘草煎服四貼，次早煎查頓服探吐，小便大通皆黑水.<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⁵³⁾

無化」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현재 膀胱의 氣化作用에 이상이 생긴 증상에 맞지 않으므로 北方寒水를 도와줄 수 있는 大苦寒의 滋腎丸(黃柏, 知母, 桂)을 쓴다는 내용이 있으며, 滋腎丸을 끓인 물로 200알을 먹은 후 前陰에 칼로 찌르는 듯한 熱痛을 느낀 후 소변이湧出되어 腫脹도 함께 消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醫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병은 갈증이 없어 燥로 본다는 내용과 病이 上焦氣分에 있으면 갈증이 있고, 下焦血分에 있으면 갈증이 없다는 東垣의 견해가 있다. (醫學綱目 p 259) 또한 이 醫案은 「名醫類案」 「卷九·淋閉」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과 문장이 「醫學綱目」과 일치한다. (名醫類案 p 248)

- 51) 「第六十五·淋閉」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환자의 右寸脈이 弦滑하여 積痰在肺로 진단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丹溪纂要」에서는 二陳湯을 사용했다는 기술은 없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312) 그리고 이 醫案은 「醫學綱目」 「卷之四·陰陽臟腑部·治上下法」에서도 나오는데, 환자가 男子이고 다른 醫師들이 利藥을 복용시켜 小便不通이 더욱 심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二陳湯으로 吐를 시켰다는 기술은 「醫學綱目」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醫學綱目 pp 60-61) 따라서 二陳湯으로 吐를 시켰다는 내용은 「東醫寶鑑」을 저술할 때 집필진이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2) 「第六十五·淋閉」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脈診과 處方 사이에 病理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내용은 血少하면 脬弱不舉하고, 氣多有飲하면 中焦가 不滑하여 溺치게 되어 脬가 아래로 밀리게 되어 내려앉게 된다는 것이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312) 또 이 醫案은 「醫學綱目」 「卷之十四·肝膽部·閉瘵遺溺·胎前淋閉」에도 나오는데, 환자가 吳氏의 女子로 左脈은 약간 柔和하였다는 기술이 있고, 나머지 내용은 「丹溪纂要」와 동일하다. (醫學綱目 p 265)
- 53) 「第六十五·淋閉」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처방의 앞부분에 氣急으로 尿閉가 생긴 것이므로 補血養氣의 治法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p 1312-1313) 이 醫案 역시 「醫學綱目」 「卷之十四·肝膽部·閉瘵遺溺·胎前淋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血氣가 바로되면 胎系가 스스로 올라가 膀胱이 관해지므로 上記處方을 사용한다는 내용과

○檢索語：小便，參朮飲，孕婦九月，轉脬，尿閉，飽食氣傷，胎系弱不能自舉，下壓膀胱

醫案40. 「參朮飲」

○原文：一孕婦轉脬，脉細氣弱，胎壓膀胱下口，用補藥恐加急滿，令產婆以香油抹手，入產門托起其胎，尿出如注.<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⁵⁴⁾

○檢索語：小便，參朮飲，孕婦，轉脬，胎壓膀胱，手入產門托起其胎

醫案41. 「關格宜吐瀉」

○原文：一婦人忽吐逆，大小便不通，煩亂，四肢漸冷，無脉。與大承氣湯一劑，至夜半，漸得大便通，脉漸和，翌日乃安。此關格之病，極為難治，垂死而活，只此一人耳.<孫兆>

○出典：孫兆 ----> 醫學綱目⁵⁵⁾

○檢索語：小便，關格，吐逆，大小便不通，煩亂，四肢漸冷，無脉，大承氣湯

醫案42. 「關格宜吐瀉」

○原文：一小兒小溲不通，號跳旋轉，下則成砂石，大便秘，肛門脫出一二寸。戴人曰，此下焦塞也，不吐不下則下焦何以開，不令飲水則小溲何以利。以調胃承氣湯一兩加牽牛子頭末三錢，河水煎服。又用瓜蒂末糊丸，芥子許六十丸，吞下。上吐下瀉，一時齊出，有膿有血，涌泄既定，令飲新水二三十次，每次飲一盞，其病如失.<子和>

○出典：子和 ---> 儒門事親⁵⁶⁾

藥을 다음날까지 복용시킨 후 咽喉을 자극하여 藥物을 嘔吐시킨다는 내용, 上記處方에 大腹皮 枳殼 青葱 籍砂仁 등을 加하여 産前後에 몸이 쇠약해지는 것과 轉脬를 방지하는데 활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265)

「醫學綱目」의 내용이 상세하지만, 내용과 문장이 좀 더 유사한 「丹溪纂要」를 이 醫案의 出典으로 한다.

54) 「第六十五·淋閉」, 「東醫寶鑑」에서는 환자의 증상이 轉脬 脉細 氣弱이라 했지만 「丹溪纂要」에서는 小便不通 脉細弱 氣血虛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소변이 나온 후 人參 黃芪 升麻를 大劑로 하여 복용시켰다는 것과 急滿이 약간 남아 있거든 다시 香油를 써서 托하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313)

그리고 이 醫案은 「醫學綱目」卷之十四·肝膽部·閉糞遺溺·胎前淋閉에도 나오는데 「丹溪纂要」의 내용 외에도 환자가 임신 7~8개월이고 丹溪가 치료하기 앞서 여러 의사들이 小便不通을 치료하였으나 오히려 急脹이 생겼다는 내용이 있다(醫學綱目 p 265). 그러나 「丹溪纂要」의 내용과 문장이 「東醫寶鑑」의 것과 가장 유사하므로 출전을 「丹溪纂要」로 한다.

55) 「卷之二十二·脾胃部·嘔吐瀉氣總論·關格」 내용과 문장이 일치한다. 다만 환자가 奉職 趙令이라는 者의 儀女이고, 大承氣湯을 하루반나절(一日半) 동안 服用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醫學綱目 p 488)

56) 「熱形·砂石淋」,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환자가 屈村의 張氏 姓을 가진 14세의 아이이고 병이 1년반이 되도록 차도가 없었고, 병이 가을에 생겼는데 발작할 때 上記증상과 더불어 小腸大痛이 있다는 것. 여러 의사들의 치료도 효과가 없어 張子和에게 치료를 부탁했다는 것. 子和가 오늘 치료하면 오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내용, 그리고 患兒가 약을 복용하고 물을 마신 후에 한번 울고 나서 새벽에서 저녁까지 마치 술에 취한 듯 정신을 맑고 자고 나서 음식을 몹시 찾았고, 그 후에 太白散과 八正散을 하루동안 복용시켜 나았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源清則流清이라는 治法의 개요가 첨가되어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에서는 瓜蒂로 만든 丸으로 涌吐를 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儒門事親」에서는 단지 苦末丸으로 표기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35) 또 이 醫案은 「醫學綱目」卷之十四·肝膽部·閉糞遺溺·淋」에서도 볼 수 있는데 「儒門事親」과 동일하다. (醫學綱目 p 263)

○檢索語：小便，關格，小溲不通，成砂石，大便秘，肛門脫出，下焦塞，調胃升氣湯，牽牛子，瓜蒂

醫案43. 「猪脬湯」

○原文：一婦人難產，因收生者不謹，以致尿脬損破，得小便淋瀝病，遂爲廢人。予思之，肌肉破傷在外者，尚可補完，脬雖在腹，恐亦可治，診其脉虛甚，試與峻補，以此方煎以猪羊脬湯，極飢時飲之，一月而安。蓋是血氣驟長，其脬自完，恐稍遲亦難成功也.<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⁵⁷⁾

○檢索語：小便，小便不禁，猪脬湯，難產，尿脬損破，小便淋瀝，峻補，猪羊脬湯

醫案44. 「膏淋」

○原文：一少年，患膏淋三年，藥餌鍼灸無少減。載人見之曰，惑蠱之疾也，亦曰白淫。實由小腹熱，非虛也。以藥涌痰三升，又瀉積穢數行，尋覺病去矣.<子和>

○出典：子和 ---> 儒門事親⁵⁸⁾

○檢索語：小便，膏淋，惑蠱，白淫，小腹熱，涌痰，瀉積穢

醫案45. 「小兒藥毒成淋」

○原文：一年少，自初生七箇月患淋病，五日七日必一發。其發也，大痛地地叫天，水道方行。狀如漆如粟者，約一盞，然後定。診其脈，輕則澀，重則弦。視其形瘦而稍長，其色青而蒼。意其父必因多服下部藥，遺熱在胎，留於子之命門而然。遂以紫雪和黃柏細末，丸梧子大，晒十分乾，而與二百丸作一服，經二時，又與三百丸作一服。率以熱湯下，以食物壓之。又經半日，痛大作連腰腹，水道乃行，下如漆如粟者一大椀許。其病減十分之八，後以陳皮一兩，桔梗木通各半兩，作一貼與之，又下漆粟者一合許，遂安.<丹溪>

○出典：丹溪 ---> 丹溪纂要⁵⁹⁾

57) 「第六十五·淋閉」,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만 難產은 氣血虛로 인한 것이 卽 産後에 더욱 虛하게 되어 峻補한다는 것과 人參 白朮을 君으로 하고, 川芎 當歸를 臣으로 하며, 桃仁 陳皮 黃芪 茯苓을 佐로 한 처방을 猪羊脬湯에 넣어 복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312) 이 醫案 역시 「醫學綱目」卷之十四·肝膽部·閉糞遺溺·産後遺尿」에서도 나오는데 「丹溪纂要」의 내용과 일치한다. (醫學綱目 pp 269-270) 그러나 「東醫寶鑑」과 문장과 흐름이 좀 더 유사한 「丹溪纂要」를 出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8) 「熱形·膏淋」, 「東醫寶鑑」에서는 환자가 소년이라 하였으나 「儒門事親」에서는 鹿邑의 어느 집안의 23세 남자로 나오고, 그 지방의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여 京城의 의사를 불러 치료하였으나 이를 虛로 보아 補하여 더욱 溫燥하게 하였고 침뜸을 썼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또 그 환자가 더위를 타고 있어 3일 동안 불쾌하였다는 것과 吐出된 痰이 먹물과 같이 시키명고 그 안에 死血과 黃綠水가 있었다는 것, 처음에는 사람의 얼굴빛이 아니었으나 치료 다음날에는 술취한 듯 얼굴빛이 붉스름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儒門事親」에서는 어느 종이 暑病으로 인한 頭痛을 子和가 涌吐法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 이 醫案 뒤에 첨가되어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435)

또 이 醫案은 「醫學綱目」卷之十四·肝膽部·閉糞遺溺·淋」에서도 나오는데 「儒門事親」과 동일하다. (醫學綱目 p 263)

59) 「第六十五·淋閉」,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처음 丸藥을 복용한 후 두 번째로 300알을 복용하는 시점이 「東醫寶鑑」에서는 二時(4시간)가 지난 후라고 기재하고 있고 「丹溪纂要」에서는 二日이 지난 후라는 차이가 있다.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312)

그리고 이 醫案 역시 「醫學綱目」卷之三十六·小兒部·小兒通治·生下胎疾」에서 볼 수 있는데 (醫學綱目 p 821), 「丹溪纂要」의 흐름과 문장이 「東醫寶鑑」의 그것과 좀 더 가까우므로, 出典을 「丹溪纂要」로 본다.

○檢索語：小便，淋病，小兒藥毒，如漆如粟者，遺熱在胎，紫雲，黃栢，陳皮，桔梗，木通

醫案46. 「交腸證」

○原文：一婦人病愈後，小便出尿，此陰陽失於傳送，名為大小腸交也。先服五苓散(方見寒門)二劑，又用補中益氣湯而愈.<回春>

○出典：萬病回春⁶⁰⁾

○檢索語：小便，交腸證，陰陽失於傳送，大小腸交，五苓散，補中益氣湯

醫案47. 「交腸證」

○原文：一婦人性嗜酒，常痛飲不醉，忽糟粕出前竅，溲尿出後竅，六脈皆沈澁，與四物湯加海金沙木香檳榔木通桃仁服之而愈。此人酒多，氣升不降，陽極虛。又酒濕積久生熱，煎熬其血，陰亦太虛。陰陽俱虛而暫時活者，以其形實，酒中穀氣尚在故也。三月後必死，果然.<丹溪>

○出典：丹溪 --> 醫學綱目⁶¹⁾

○檢索語：小便，交腸證，嗜酒，糟粕出前竅，溲尿出後竅，四物湯，海金沙，木香，檳榔，木通，桃仁，酒多氣升不降，酒濕積久生熱，陰陽俱虛

醫案48. 「牛乳湯」

○原文：唐太宗苦氣痢，百方不差，有衛生進此方，服之即愈.<醫說>

○出典：醫說⁶²⁾

○檢索語：大便，氣痢，唐太宗，牛乳湯

醫案49. 「蘇麻粥」

○原文：一老婦，忽腹脹痛頭痛，惡心不食，正是老人風秘，藏府壅滯，氣聚胸中，則腹脹惡心不欲食，上至於巔，則頭痛神不清，服此粥兩啜而氣泄，下結糞十餘枚，藏府流暢，諸疾自去矣.<本事>

○出典：普濟本事方⁶³⁾

○檢索語：大便，老人秘結，蘇麻粥，腹痛頭痛惡心不食，風秘，藏府壅滯，氣聚胸中，藏府流暢

醫案50. 「鯨」

○原文：一人患痢月餘，糟粕不實，晝夜五六次，又脫肛。取鯨一箇，治如食法，用生薑米糲作羹，入砂糖一小塊，不用鹽醬熟煮。喫一二椀，三月而愈。蓋鯨乃介蟲，屬金，而補肺與大腸，故有效焉.<正傳>

○出典：醫學正傳⁶⁴⁾

○檢索語：大便，痢疾，糟粕不實，脫肛，鯨，生薑，米糲，砂糖

고찰

『東醫寶鑑』 內景篇에는 총 50首의 醫案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金元四大家 및 明代 醫家들의 醫案이 主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우리나라 醫家들의 醫案이나 『東醫寶鑑』 편찬자들의 醫案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醫案과 醫話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條文들이 있으며, 편집체계상으로도 『東醫寶鑑』 醫案을 따로 구분하여 서술한 明代醫書⁶⁵⁾들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醫案을 處方 및 醫論과 구별하지 않고 混在되어 서술하고 있다.

本考에서는 醫案의 出典과 내용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1. 의안의 출전 분석

1) 醫家別 分析

표 1과 그림 1을 보면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醫案 50首 중 가장 많은 것은 朱丹溪의 醫案으로, 총 12개로 전체의 24%에 해당한다. <丹溪>와 <丹心>으로 표기되어 있고 『丹溪纂要』에서 8개, 『醫學綱目』에서 4개의 醫案이 引用되었다. 12개의 醫案 모두가 『醫學綱目』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 중 8개는 『東醫寶鑑』 原文에 근접한 『丹溪纂要』를 出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丹溪纂要』는 『醫學綱目』보다 100餘年 후인 1481년에 盧和가 撰한 醫書로 朝鮮中期에 이미 朝鮮醫家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丹溪纂要』와 『丹溪心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⁶⁾.

두 번째로 많은 것은 張子和의 醫案으로 총 10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張子和>·<子和>나 <儒門

다. (普濟本事方 p 145)

64) 『卷之三·痢』 좀 더 상세하다. 우선 환자의 나이가 50歲 정도이고 夏秋間에 痢疾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약간의 진전만 있었고, 上記 症狀 이외에도 식사를 하지 못해서 다시 보름(半月) 동안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 熊宗立(明代의 醫家)이 위의 방법대로 약을 복용시킨 후 3일동안 변소에 가지 않게 되어 大腸이 實해졌고 肛門 역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 證은 脾虛로 인해서 肺와 大腸의 化源과 滋養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생긴 母能令子虛의 病理상태라는 설명과, 먼저 복용한 黃連 黃芩 등의 寒涼之劑로 인해서 생긴 肺寒을 生薑의 辛味와 沙糖의 甘味로 補脾肺하여 肺大腸을 實하게 한다는 설명이 附加되어 있다. (醫學正傳 p 122)

65) 대표적인 의서로는 虞博의 『醫學正傳』, 龔廷賢의 『萬病回春』 등이 있음.

66)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醫門寶鑑』에 收錄된 醫案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4), p 34, 2000.

60) 『卷之六·婦人諸病』 동일하다. 다만 “此陰陽失於傳送”이라는 문구가 『萬病回春』에서는 “此陰盛失於傳送”으로 기재되어 있다. (萬病回春 p 375)

61) 『卷之二十五·脾胃部·奇病』 내용과 문장이 동일하다. 다만 환자의 이름이 馬希聖이고 50세라는 내용이 있는데, 환자가 여자라는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醫學綱目 p 584)

또한 이 醫案은 『名醫類案』 『卷十一·交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醫學綱目』의 기술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此人酒多，氣升不降，陽極虛，又酒濕積久生熱，煎熬其血，陰亦太虛，陰陽俱虛，而暫時活者以其形實，酒中穀氣，尚在故也。三月後必、死果然。”이라는 부분은 『名醫類案』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名醫類案 pp 328-329)

62) 『卷六·臟腑泄痢·乳煎麻撥治氣痢』 매우 상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환자의 症狀이나 治癒過程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張寶藏이란 사람이 벼슬을 얻어 부임지로 가는 길에 겪은 경험과 수도로 돌아왔을 때 太宗이 氣痢에 걸려 이를 고치는 사람에게 큰 賞을 내린다하여 乳煎麻撥方을 唐太宗에게 올려 5품 벼슬을 받았다는 내용. 그 후 太宗이 再發했을 때 乳煎麻撥方을 한 번 먹고 치유됐다는 내용 등이 있다. (中國醫學大成三編 第十二冊 p 111)

63) 『卷第十·婦人諸疾』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만 좀 더 상세하다. 환자가 귀한 집의 노부인이고 나이는 84세이며, 發病한 후 여러 의사들을 불렀으나 補脾進食시키고 治風清利頭目하는 藥을 誤用하여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許叔微를 불러 치료하게 하였다는 것과 臟腑를 流暢시키면 모든 증상이 사라질 거라 보고 치료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普濟本事方』에서는 蘇麻粥이라 하지 않고 麻子蘇子粥이라 기재되어 있

事親>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10개의 醫案 모두가 『儒門事親』에 수록되어 있지만 그 중 3首의 醫案은 문장이 더 유사한 『醫學綱目』을 出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各項의 醫家別 分析

	丹溪	子和	樓英	許叔微	孫兆	其他	無名	計
身形								
精			3					3
氣								
神	2	3			1	海藏 1	3	10
血						陳景魁 1		1
夢	1	2		1				4
聲音			1			錢乙 1		2
言語	2	1						3
津液						海藏 1		1
痰飲								
五臟六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	1							1
蟲		1		1	1	褚澄 1 徐文伯 1 甄立言 1		4
小便	7	2			1	東垣 1 龔廷賢 1		12
大便				1		熊宗立 1	1	3
總計	12	10	4	3	3	10	8	50
비율(%)	24	20	8	6	6	20	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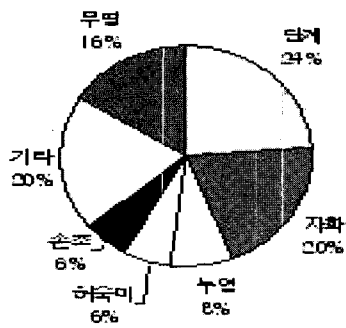


그림 1. 醫家別 分析

세 번째로 樓英의 醫案이 4개로 8%에 해당하며, <綱目>으로 표기되어 있고 모두 『醫學綱目』에서 찾을 수 있다. 『醫學綱目』은 1380년에 樓英이 撰한 醫書로 『黃帝內經』을 중시하여 諸病을 五

臟六腑에 귀속시켜 분류하였고, 婦人·小兒·運氣篇을 덧붙여 놓고 있다. 내용이 풍부하고 調理있게 서술하여 後代醫家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東醫寶鑑』에 수록된 醫案 중 실질적으로 『醫學綱目』에서 引用된 비중이 가장 크므로 朝鮮醫家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許叔微와 孫兆의 醫案이 각각 3개씩으로 전체의 6%에 해당한다. 許學士라고도 稱하는 許叔微의 醫案은 <本事>나 <本事方>으로 표기되어 있고, 모두 『普濟本事方』에서 찾을 수 있다. 『類證普濟本事方』 혹은 『本事方』이라고도 하는 『普濟本事方』은 宋代 許叔微의 撰으로 病類를 20病類로 나누어서 300餘方을 수록하고 있는데 方劑 끝에 作者의 經驗이 附記되어 있다. 孫兆의 醫案은 <孫兆>와 <綱目>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모두 『醫學綱目』에서 인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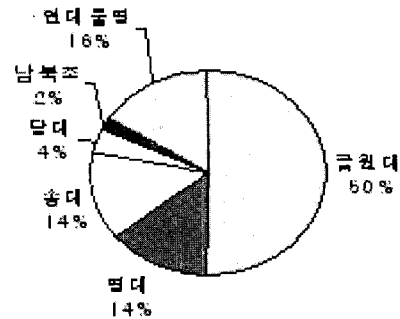


그림 2. 醫家의 時代別 分析

그 다음으로 <海藏>이나 <綱目>으로 표기된 元代 醫家인 王好古의 醫案 2개가 『醫學綱目』에서 인용되었다. 1개의 醫案이 인용된 醫家는 東垣·陳景魁⁶⁷⁾·錢乙·熊宗立⁶⁸⁾·徐文伯⁶⁹⁾·褚澄·甄立言⁷⁰⁾·龔廷賢 등이며 『醫學綱目』·『醫學入門』·『小兒藥證直訣』·『醫學正傳』·『醫說』·『食物本草』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方士·衛士·醫者 등으로 기재되어 醫家가 불분명한 醫案이 8개로 전체의 16%에 해당하는데, 『經驗方』·『食物本草』·『醫說』·『醫學入門』·『古今醫鑑』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食物本草』는 東垣이 編輯하고 明代 李時珍이 校訂하고 姚可成이 補輯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姚氏의 著作으로 추정되는 本草書다. 주로 本草와 관련된 醫案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를 東垣이나 李時珍 혹은 姚可成의 醫案으로 보기에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 內景篇에 수록된 醫案의 醫家를 時代別로 나누어 보면 丹溪·子和·東垣·海藏 등 金元代 醫家의 醫案이 25개로 전체의 50%에 해당하며, 樓英·龔廷賢·陳景魁·熊宗立 등 明代 醫

67) 明代의 醫家로 鍼灸에 能했다. 『五珍集』을 著述하였으나 佚失되었음.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p 296)
 68) 15世紀 明代 醫家로, 『內經』, 『難經』, 『脈經』 등 여러 醫書에 대하여 編纂과 註釋을 하였다. 『醫學大全』, 『傷寒運氣全書』, 『類證注釋全氏小兒方訣』 등을 編著함.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p 195)
 69) 南北朝時代 南齊의 醫家(5世紀)로 『子午流注逐日按時定穴歌』를 撰했는데, 이를 後世에 發展·變化하여 鍼灸學의 한 流派을 이루었다.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p 112)
 70) 7世紀 唐代 醫家로, 本草에 能通하고 寄生蟲病을 잘 治療했다. 『本草音義』, 『本草藥性』, 『古今錄驗方』을 撰輯하였다.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pp 301-302)

家와 孫兆·許叔微·錢乙 등 宋代 醫家の 醫案이 각각 7개로 14%씩, 褚澄과 甄立言 등 唐代 醫家の 醫案이 2개로 4%, 南北朝時代 醫家인 徐文伯의 醫案이 1개로 2%이며, 醫家가 불분명하여 시대를 알 수 없는 것이 8개로 16%에 해당한다(그림 2).

2) 실제 引用된 醫書別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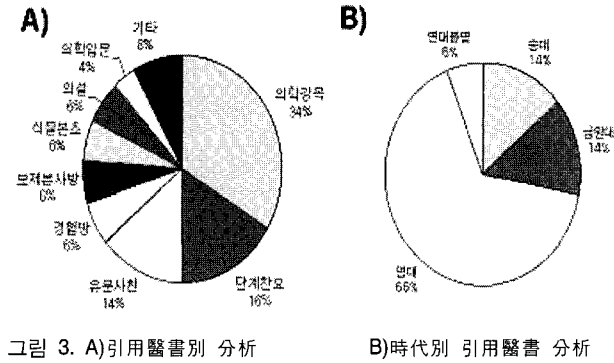


그림 3. A) 引用醫書別 分析 B) 時代別 引用醫書 分析

『東醫寶鑑』 內景篇의 醫案의 出典을 조사한 결과, 실제 引用한 것으로 확인된 醫書는 總 12種이다. 이 중 『醫學綱目』이 17개의 醫案이 인용되어 34%를 차지하고, 『丹溪纂要』가 8개로 16%, 『儒門事親』이 7개로 14%, 『經驗方』·『普濟本事方』·『食物本草』·『醫說』 등이 각각 3개로 6%씩, 『醫學入門』이 2개로 4%, 『小兒藥證直訣』·『古今醫鑑』·『萬病回春』·『醫學正傳』 등이 각각 1개로 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A).

그리고 引用醫書を 時代別로 나누어 보면 『普濟本事方』·『小兒藥證直訣』·『醫說』 등 宋代醫書가 7개의 醫案을 수록하여 14%의 비율이고, 金元대醫書인 『儒門事親』이 7개로 14%, 『醫學綱目』·『丹溪纂要』·『醫學入門』·『古今醫鑑』·『萬病回春』·『醫學正傳』 등 明代醫書가 33개로 66%, 年代不明인 『經驗方』이 3개로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B). 특히 明代醫書의 비중이 높는데, 이 중 興廷賢의 『古今醫鑑』과 1587년에 編纂된 『萬病回春』은 당시로서는 最新 醫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는 金元대醫家の 醫案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도 실제로는 明代醫書들을 가장 비중있게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3) 『東醫寶鑑』의 出典標記別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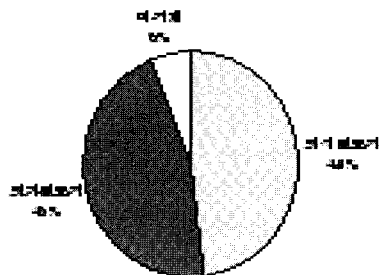


그림 4. 出典標記名 分析

『東醫寶鑑』 內景篇에서 出典을 표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醫案의 끝에 <綱目>이나 <丹溪>처럼 표기를 하는 방식이지만, 醫案의 앞부분이나 중간에 “入門曰…”과 같은 방식으로 出典을 醫書나 醫家로 기재하는 것⁷¹⁾도 있다.

그리고 그림 4에서 보듯이 出典이 醫書名으로 표기된 것이 24개로 48%, 醫家나 人名으로 표기된 것이 23개로 46%, 未記載된 것⁷²⁾이 3개로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出典을 표기할 때 醫書나 醫家를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특별한 원칙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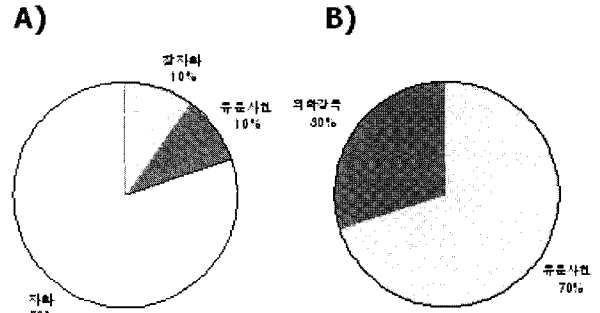


그림 5. A) 子和醫案의 標記 B) 子和醫案의 實際引用

그리고 出典標記方式의 一貫性에서 子和 醫案⁷³⁾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듯이 子和의 醫案은 <張子和>·<子和>·<儒門事親>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醫家名을 표기하는 경우에도 일관된 방식이 없고, 실제로 3개의 醫案이 인용된 『醫學綱目』을 나타내는 <綱目>이라는 표기는 없다. 그리고 丹溪 醫案⁷⁴⁾의 경우에도 出典이 未標記된 醫案 21번을 제외하고는 <丹溪>·<丹心>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4개의 醫案이 인용된 『醫學綱目』을 나타내는 <綱目>이란 표기는 찾아볼 수 없다(그림 6). 또한 普濟本事方의 醫案⁷⁵⁾의 경우에도 出典標記가 <本事方>과 <本事>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醫家名이나 醫書名을 표기할 때조차 일관된 원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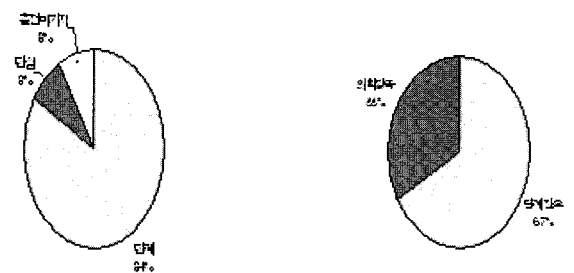


그림 6. A) 丹溪醫案의 標記 B) 丹溪醫案의 實際引用

또한 出典標記의 정확성을 살펴보면, 醫家로 표기된 醫案들

- 71) 醫案 1, 7, 14, 36번.
- 72) 出典이 未記載된 것은 醫案 2, 21, 36번으로 모두 『醫學綱目』에서 찾을 수 있다.
- 73) 醫案 4, 10, 11, 15, 17, 23, 25, 30, 42, 44번.
- 74) 醫案 5, 12, 18, 21, 22, 37, 38, 39, 40, 43, 45, 47번.
- 75) 醫案 16, 31, 49번.

은 그 醫家들의 著書 외에도 다른 醫書에서 찾을 수 있었고, 醫書名으로 표기된 다른 醫案의 경우에도 『經驗方』의 醫案⁷⁶⁾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 醫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醫案 18번의 경우 <丹心>이라고 書名을 표기하고 있고 『丹溪纂要』에서 찾을 수 있지만 醫案의 마지막 부분의 “此因恐傷腎, 故以鹽炒黃柏灸玄參, 引參歸等藥入腎也”라는 문구는 『丹溪纂要』에는 없고 『醫學綱目』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醫案의 出典은 『醫學綱目』으로 봐야 하므로 <丹心>이란 표기는 잘못된 것이다. 즉 실제로는 『醫學綱目』을 참고하면서 出典은 권위있는 有名醫書를 나타내는 <丹心>이라 표기한 것이다. 실제로 참고하는 醫書보다 저명한 醫家나 醫書를 出典으로 기재하는 이런 방식은 內景篇 외에도 「外形篇」과 「雜病篇」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 분석

醫案의 形式은 크게 實錄式, 回想式, 病歷式으로 구분⁷⁷⁾되는데, 『東醫寶鑑』에 수록된 醫案은 기본적으로 回想式 醫案에 속한다. 『東醫寶鑑』에서 醫案의 서술방식은 각각의 項目 밑에 醫論·處方 등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되어 서술하고 出典을 덧붙여 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醫學綱目』의 서술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醫學綱目』의 醫案에서는 醫話에 가까운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患者·病症·診斷·治療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醫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만, 『東醫寶鑑』에서는 醫案으로 분류하기 곤란할 정도로 醫話에 가까운 것⁷⁸⁾이 있고, 인용된 醫案에서도 患者와 病理·診斷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하게 기술된 醫案들이 많은 것을 볼 때, 그 당시 朝鮮醫家들은 醫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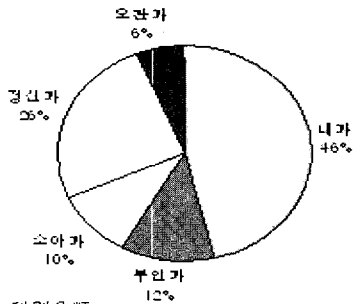


그림 7. 醫案의 科別分類

위의 표 1에서 內景篇의 각 項을 醫案이 많이 수록된 순서

76) 醫案 6, 7, 13번.
 77) 黃煌의 『醫案助讀』에 따른 분류이다. 實錄式 醫案은 “脈案”이라고도 하며 의사가 問診할 때 현장에서 적어 내려가는 것으로 보통 처방전 위에 쓰게 된다. 回想式 醫案은 진찰 후에 진료의 과정과 효과를 回想하여 기록한 醫案으로 그 醫師의 理解와 脚色을 거쳤기 때문에 醫話性 醫案이라고도 한다. 病歷式 醫案은 근대 서양의학의 병력기록의 형식에 따라 환자의 情況·病狀·病理·診斷·治療方法·處方·效果 등을 분류하여 기록한 것이다.
 78) 醫案 6번과 35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內景篇·蟲」에는 “人每言語時, 喉中有物作聲相應, 名曰應聲虫. 昔有人患此病, 醫者教誦本草, 隨物皆應, 至雷丸則無聲. 遂服數枚而愈. <入門>”라는 기술이 있는데, 患者·病症·治療가 있어 醫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病症과 治療가 현재의 醫學常識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기에 필자는 이것을 醫話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로 살펴보면, 「小便」이 12개로 전체의 24%에 해당하고, 「蟲」과 「神」이 10개로 20%, 「夢」이 4개로 8%, 「精」과 「言語」, 「大便」이 각각 3개로 6%씩, 「聲音」이 2개로 4%, 「津液」과 「胞」·「血」이 각각 1개로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身形」이나 「氣」, 「痰飲」, 「五臟六腑」등은 醫案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주로 醫論을 기술하고 있다.

醫案에 기술된 疾患을 科別로 분류해보면 그림 7과 같다. 內景篇의 특성상 外科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이 傷寒⁷⁹⁾과 雜病 등을 포함한 內科에 해당한다. 그 외에 不妊·白帶·妊娠轉胎·難產 등에 관한 내용을 있는 6개의 醫案⁸⁰⁾이 婦人科에 해당하고, 痼疾·吐瀉·童子盜汗·砂石淋·藥毒成淋 등을 다루고 있는 醫案 5개⁸¹⁾가 小兒科에 해당하며, 瘡에 대한 내용이 있는 3개의 醫案⁸²⁾이 五官科에 해당한다. 驚悸怔忡·癲狂·常怒·健忘·不眠·笑不休 등 精神科에 해당하는 醫案이 13개⁸³⁾가 있는데, 그 중 醫案 6번을 보면 藥物을 患者에게 服用시키기 전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친개에게 투여한 후 解剖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의 動物實驗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흥미로운 醫案이다.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男性이 14명, 女性이 20명, 小兒가 6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지 “一人…”이나 “一老…”와 같이 기재하여 性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환자의 年齡이나 身分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는 原出典에서는 환자의 姓名·年齡·性別·身分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東醫寶鑑』에서 인용될 때는 대부분 간략화하거나 생략하였기 때문이다.

표 2. 原出典과의 내용상 일치정도 비교

분류	의안번호	갯수	비율(%)
거의 일치 혹은 완전 일치	1, 5, 11, 12, 14, 17, 30, 33, 35, 41, 46	11	22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정	2, 3, 4, 9, 10, 15, 16,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4, 36, 37, 38, 39, 40, 42, 43, 45, 48, 49, 50	31	62
내용에 변화를 주는 수정	8, 19, 32, 44, 47	5	10
출전미상	6, 7, 13	3	6
합계		50	100

표 2에서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醫案과 인용된 原出典의 醫案과의 내용의 일치정도를 살펴보면, 원래의 내용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게 수정한 것이 3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原醫案에서 患者의 이름이나 나이를 생략한 정도로 일치하는 醫案이 11개⁸⁴⁾이다. 그러나 原出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색하거나 醫論을 醫案으로 운색한 경우, 초점변화, 誤記 등으로 내용

79) 醫案 21번 丹溪의 醫案이 여기에 해당한다.
 80) 醫案 15, 25, 39, 40, 43번.
 81) 醫案 5, 19, 24, 42, 45번.
 82) 醫案 20, 21, 22번.
 83) 醫案 4, 6, 7, 8, 9, 10, 11, 12, 13, 16, 17, 18, 23번.
 84) 醫案 1, 5, 11, 12, 14, 17, 30, 33, 35, 41, 46번. 이 중 醫案 12번은 出典과 완전히 일치한다.

의 변화가 있는 것이 5개가 있는데, 醫案 19번의 경우에는 聲音出於腎에 초점을 맞춘 醫案으로 각색하여 原出典의 脾胃虛弱인 한 慢驚風에 초점을 맞춘 의도와는 다르게 인용된 것이다. 醫案 32번의 경우에는 『醫學入門』의 醫論에 “一女”인 환자와 “半月”의 치료기간을 첨가하여 醫案으로 윤색한 것이다. 醫案 8번의 경우 『醫學綱目』에서 睡眠이 治愈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환자의 원래 症狀과 혼동하여 기재한 것이고, 醫案 44번의 경우 『儒門事親』에는 환자가 23歳の 男子인데 『東醫寶鑑』에는 “一少年”으로 기재되었고, 醫案 47번의 경우 『醫學綱目』에는 性別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환자의 이름이 馬希聖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東醫寶鑑』에서는 “一婦人”으로 기재하였다.

診斷에 있어서는 問診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脈診에 대해 언급한 醫案은 17개⁸⁵⁾로 전체의 34%에 불과한데, 이는 『東醫寶鑑』에서 각 項의 앞부분에 脈法을 별도로 기재하여 脈診을 重視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표 3. 治療法別 分類

분 류	의안번호	개수	비율(%)
藥物治療(內服藥)	1, 2, 3, 5, 6, 7, 8, 9, 10, 12*, 13, 14,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2, 43, 45, 46, 47, 48, 49, 50	40.5	81
鍼灸治療	20*	0.5	1
心理治療	4, 11, 12*, 17	3.5	7
外科的 處置	23*, 38*, 39*, 40	2.5	5
治法만 있는 경우	15, 30, 44	3	6
합계		50	100

* 중복되는 의안임. 중복되는 의안의 경우 개수를 계산할 때 '1/중복횟수'로 환산하였음.

治療法을 살펴보면 표 3.에서처럼 대부분이 內服藥을 이용한 藥物治療이지만, 鍼灸治療과 藥物治療을 병행한 醫案⁸⁶⁾이 1개, 藥物治療과 병행하여 비녀나 손가락으로 咽喉를 자극하여 催吐시키는 外科的 處置를 하는 醫案⁸⁷⁾이 3개가 있다. 또한 婦人轉胎証에서 胎兒를 손으로 밀어 올리는 外科的 處置를 하는 醫案⁸⁸⁾도 있다. 心理療法를 이용한 것도 4개가 있는데 이 중 3개는 子和의 醫案⁸⁹⁾이고, 1개는 丹溪의 醫案⁹⁰⁾이다. 또한 구체적인 治療方式이 없고 汗·吐·下 등의 治法만 기술한 醫案⁹¹⁾도 3개가 있다. 그리고 出典書에서는 治法만 있는데 『東醫寶鑑』에 인용되는 과정에서 處方이 添加된 경우도 있다. 醫案 25번의 原出典인 『儒門事親』과 實際出典인 『醫學綱目』에서 吐·下의 治法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瓜蒂散과 導水丸이 첨가되어 있다. 그리고 醫案 37번의 경우 『醫學綱目』과 『丹溪纂要』에서

吐法만 있지만 『東醫寶鑑』에서는 二陳湯이 첨가되어 있고, 醫案 42번의 경우에는 『儒門事親』에서 단지 苦末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瓜蒂가루로 만든 丸을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原出典의 治法에 맞는 구체적인 處方을 附加하여 기재한 것은 臨床에서의 活用度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결 론

이상에서 주로 統計적인 方法에 의하여 『東醫寶鑑』內景篇에 수록된 醫案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東醫寶鑑』 內景篇에는 총 50首의 醫案이 있는데, 모두 中國 醫書에서 인용된 것으로 金元代 醫家の 醫案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宋代와 明代 醫家の 醫案이 각각 7개씩 인용되고 있다.

實際 引用된 醫書는 모두 12種으로 『醫學綱目』과 『丹溪纂要』等 明代 醫書에 수록된 醫案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宋代와 金元代 醫書의 醫案이 각각 7개씩 인용되었다.

朱丹溪와 張子和 등 金元代 醫家の 醫案을 가장 重視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金元代 醫書에서 직접 인용한 것보다 明代 醫書에서 再引用한 경우가 많았다.

醫案의 末尾에 醫家名이나 醫書名으로 出典을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醫家나 醫書를 따로 구분하는 出典標記의 일관된 원칙은 없었다.

『醫學綱目』이나 『萬病回春』 등 明代 醫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醫案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醫案이 原出典의 내용을 省略하거나 簡略하는 등 『東醫寶鑑』 編纂者의 의도에 따라 수정하여 인용되었고, 醫論을 醫案으로 脚色하는 경우도 있었다.

治療法에 있어서 內服藥을 이용한 藥物治療이 대부분이지만 鍼灸나 心理治療, 심지어 外科的 方法을 사용한 것도 있었다. 또한 原出典에서 治法만 있거나 處方이 不分明할 경우 구체적인 處方을 附加하여 臨床에서의 活用度를 높이려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醫書에 수록된 醫案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면 韓醫學의 발전과정과 實證性確保, 그리고 당시의 醫療狀況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2. 黃煌. 醫案助讀.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3.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醫門寶鑑』에 收錄된 醫案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20(4), 2000.
4. 하기태, 오정석, 양원미, 김준기, 최달영. 『醫門寶鑑』에 收錄된 周命新 醫案에 대한 研究.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3(1), 2000.
5. 김두중.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66.
6. 張笑平 主編. 中醫病案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7. 施杞, 蕭敏材 主編. 中醫病案學. 上海, 中國大百科出版社上海

85) 醫案 1, 3, 9, 10, 14, 15, 16, 17, 22, 29, 38, 39, 40, 41, 43, 45, 47번.

86) 醫案 20번.

87) 醫案 23, 38, 39번.

88) 醫案 40번.

89) 醫案 4, 11, 17번.

90) 醫案 12번.

91) 醫案 15, 30, 44번.

- 分社, 1994.
8.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9. 安秉禧. 『神仙太乙紫金丹』 解題. 서울, 한국서지학회, 季刊書誌學報(6).
 10. 송일병 外編.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
 11. 金永勳 著. 李鐘馨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84.
 12. 周命新. 醫門寶鑑. 대구,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社, 1987.
 13.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14. 劉完素, 張從正, 李杲, 朱震亨.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15.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16. 李杲 編輯, 李時珍 參訂, 姚可成 補輯. 食物本草. 北京, 中國醫藥科學出版社, 1990.
 17. 中國醫學大成三編. 第十二冊, 岳麗書社, 1994.
 18. 李槌 編著. 新校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9.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20. 龔信 纂輯.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21. 龔廷賢 撰.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2.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中國 人民衛生出版社 影印本), 1986.
 23. 江瓘 編著. 名醫類案. 台北, 宏業書局, 1979(民國 68年).
 24.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